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주간충현

교회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기를 부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리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한 걸음씩
십자가의 길로

지금 우리는 사순절기(2.25~4.11)를 지내고 있습니다. 매순간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하지만 사순절기 동안 더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신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아마도 사탄은 사순절기 동안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혼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우리의 손을 놓게 만들 것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파담게 강권하라"(고전 16:13).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순절기 동안 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삼고하십시오. 사순절기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예에 메시지를 계속해서 묵상하십시오. 이럴 때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동시에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는 영적 호흡이며 창조주와 인장이 교제할 수 있는 신비의 시간입니다. 나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화~주일, 4:50)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력교구가 아니더라도 가급적 참석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 연례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한 걸음씩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 주간 주력교구는 8원을 침조바랍니다

오늘, 교육훈련원 개강

오늘, 2009년 상반기 교육훈련원 교육이 일제히 개강을 합니다. 수요성경공부,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에는 신명기, 예레미야, 바울 서신서(엡~골, 살전~딤후)가 개설되며, 이 과정을 수강하신 분들은 복음이 흐려진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이 되기 위한 필수과정인 교사 양성부와 찬양대원 양성부는 지식과 방법 전수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진실로 복음 안에 서서 천국일꾼을 양성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확고히 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개강한 충현전도대원 훈련도 한 영혼의 소중함과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데 진실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곧 신청하십시오. 수강신청은 제1교육관 2층에 위치한 교육국으로 오시면 됩니다!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는 살리라

으로 의롭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롬 5:1).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을 가리켜 의인이라 부르신다(롬 1:17). 이 안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포함시켰다.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것은 바울 자신의 의전이나 사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에 근거하였다. 율법에 근거한 의와 이와는 정반대 입장인 믿음에 근거한 의를 배후로 하는 의인을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둘은 불과 기름 같다. 섞일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도 없다. 의인이 되는 길은 믿음으로 하든지 아니면 율법을 통하는 길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죄인의 의인이 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의인이 살 것이라는 말씀에는 소홀해 할 때가 잦다. 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반면 율법의 행위로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갈 3:10).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전에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죽은 죄인이었다(엡 2:1).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죄 문제를 해결 되었다(엡 2:12~13).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독교는 이것을 혼합하여 의롭게 살 것을 가르쳐왔다. 믿음과 율법의 대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교회가 순수한 복음을 외면한 채 율법이 섞인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갈 1:6-9).

의로운 사람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율법을 잘 지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하여 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마틴 루터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이전에 루터는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의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루터에게 점점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다. 루터도 루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날지 모르겠는데 "바로 살아야 해!" 하면서 무의식 속에서 종의 멍에를 지고 산다. 루터는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 때문에 진실로 고민하였고, 또 자신이 의로워지기 위하여 많은 고행의 길을 걸었다. 그런데 루터도 그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 관념 속에 있던 것이 마침내 루터에게 말씀 안에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찾아왔다. 그렇게도 그의 신앙생활에 거름들이 되었던 하나님의 의와 곧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에 대한 열서가 되었다. 그는 인간의 행위가 전혀 필요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롬 16:25~26). 인간의 행위의 능력이 아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다(롬 3:3).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말로 이를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롬 3:21~22).

2000년이 넘도록 복음은 여러 모양으로 천국을 확장시키고 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구약의 예언적인 말씀을 들어서 표현하였다. 이 구약의 말씀이야말로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복음의 진리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다. 인간 자체는 본질상 불의와 불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시 51:5). 성경은 인간의 죄성을 가차 없이 적나라하게 지적하여 주신다(벧전 4:3; 엡 2:3).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다. 인간 자신은 죄를 깨닫게 되는 동시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죄성을 감추려 할 뿐 아니라 이 죄를 자신의 힘으로 벗어나려고 끝없는 노력을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인간에게는 완전을 이루는 것이 없는 죄성이 인간의 본질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골 5:19~21). 인간에게는 인간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다. 이 복음은 인간을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이다. 복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다. 이 복음은 곧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로, 또한 믿는 자들만이 알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신비다. 아멘.

WONDERFUL HOPE

*For whatever was written in earlier times was written for our instruction,
so that through perseverance and the encouragement of the Scriptures we might have hope.
(Romans 15:4)*

What is hope? Hope is the expectation of something desired and the confidence that it will happen in the future. Christian hope is the belief that God will keep His promises for the future. We base this hope on the evidence of God's faithfulness in the past. The Bible gives us God's word; it tells us what promises He has already fulfilled and what promises we still have to look forward to, like life after death, Christ's return, and eternity in heaven. Today's Bible verse tells us that the Bible was written to instruct, encourage, and give hope to God's children. This hope is wonderful and certain, not simply a wish. God's faithfulness to His children is clearly demonstrated in the history of salvation as recorded in the Bible and as experienced by the church.

Sadly, some people have no wonderful hope. Paul describes these people by saying, "...remember that you were at that time separate from Christ, excluded from the commonwealth of Israel, and strangers to the covenants of promise, having no hope and without God in the world"(Eph. 2:12). Indeed, without God one is absolutely hopeless. Because of Jesus Christ we have great, wonderful hope. Too many of today's Christians don't know this hope. They don't truly realize that without Jesus they are dead because of sin, "And you were dead in your trespasses and sins, in which you formerly walk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of the spirit that is now working in the sons of disobedience"(Eph. 2:1~2). No one can relate to God, receive His promises, and experience His love without Jesus. Paul says, "If we have hoped in Christ in this life only, we are of all men most to be pitied"(1Cor. 15:19). Faith in Christ gives us a future of eternal life.

Christians are born again to a living hope. Before believing in Jesus, everyone had a dead hope, but coming to Christ gives believers a living hope,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according to His great mercy has caused us to be born again 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1Pet. 1:3). This is exciting news! Because Christ lives, those who believe in Him live also. Jesus said to His disciples, "After a little while the world will no longer see me but you will see Me; because I live, you will live also"(Jn. 14:19). Jesus Christ gives believers real life, "He who has the Son has the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the life"(1Jn. 5:12). Isn't that wonderful? We have an everlasting future because of Jesus. He has gone ahead into heaven, and as our hope, though out of sight, He holds us secure, especially in times of trouble, "This hope we have as an anchor of the soul, a

hope both sure and steadfast and one which enters within the veil"(Heb. 6:19). Jesus gives us peace, the kind of peace that surpasses all understanding, to calm our souls during the difficult times of this life. Remember the time when His disciples became frantic and fearful over the winds and waves? Jesus got up from sleeping and rebuked the wind and said to the sea, "Hush, be still"(Mk. 4:39), and everything immediately became perfectly calm. Only believers can experience such wonderful hope.

Christians who have wonderful hope are cleansed from sin, "And everyone who has this hope fixed on Him purifies himself, just as He is pure"(1Jn. 3:3). When we repent, Jesus continually cleanses us from sin. He makes us pure and holy in the sight of our Heavenly Father. 1John 1:7 says,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Himself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His Son cleanses us from all sin." Paul encourages God's children to live holy, "Therefore, having these promises, beloved, let us cleanse ourselves from all defilement of flesh and spirit, perfecting holiness in the fear of God"(2Cor. 7:1). As Christians, our hope gives us the desire for personal holiness externally (flesh) and internally (spirit).

Christians who have wonderful hope share it with others. What their hearts desire is to tell others about the gospel because it has saved them. Paul explains, "For it is written in the Law of Moses, 'You shall not muzzle the ox while he is threshing.' God is not concerned about oxen, is He? Or is He speaking altogether for our sake? Yes, for our sake it was written, because the plowman ought to plow in hope, and the thresher to thresh in hope of sharing the crops"(1Cor. 9:9~10). Believers share God's great love with confidence and diligence because they know that what has been promised will be fulfilled, "And we desire that each one of you show the same diligence so as to realize the full assurance of hope until the end"(Heb. 6:11). There is great joy in sharing and great anticipation, "looking for the blessed hope and the appearing of the glory of our great God and Savior, Christ Jesus"(Tit. 2:13).

My dear friend, do you have this wonderful hope? Do you understand that earthly hopes are dead hopes, and that Jesus is the only living hope? Today is the third Sunday in Lent, and this church is following Jesus because He gives us a living hope that leads to eternal life, "in the hope of eternal life, which God, who cannot lie, promised long ages ago"(Tit. 1:2). Please trust God's promises and believe in Jesus. He will fill your heart with wonderful hope that is sure to bring you eternal life. Amen. 🌿

놀라운 소망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로마서 15:4)



김성필 목사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바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미래에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확신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에 있습니다. 이 소망은 과거에 하나님이 보여 주셨던 그분의 신실하심에 기초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약속들과 앞으로 성취하실 약속 곧 죽음 후의 삶, 그리스도의 재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해 말해 줍니다. 오늘날의 본문은 성경이 하나님께 자녀들에게 교훈과 위로,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단순히 소원 수준이 아니라 아주 놀랍고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교회가 경험해온 것처럼 구원의 역사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슬프게도 놀라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인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엡 2:12). 사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고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소망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자신들이 죄로 인해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엡 2:1~2). 예수님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거나 그분의 약속과 사랑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고전 15:19).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거듭나면 산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을 통해 산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올 때 신자들은 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벧전 1:3). 정말 흥분되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 또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요 14:19).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들에게 참 생명을 주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가 보장된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으로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특별한 기 고난의 시기에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

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닢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히 6:19).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를 주심으로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안 우리의 영혼을 평온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바닷과 파도를 보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막 4:39). 그리고 그 즉시 모든 것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오직 신자들만이 그러한 놀라운 소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죄 사함을 받는다

놀라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3).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순결하고 거룩하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요한일서 1:7은 말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하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이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후 7:1).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소망은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거룩함에 이르고자 하는 간절함을 갖게 합니다.

놀라운 소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놀라운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눕니다. 복음이 자신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설명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열려하십니까나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밟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고전 9:9~10). 신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지런히 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알고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히 6:11). 복음을 나눌 때 큰 기쁨과 기대가 있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였으니”(딤후 2:13).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놀라운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이 소망이심을 이해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의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산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임”(딤후 1:2).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놀라운 소망으로 채우실 것이며 그 소망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영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 ■

2009년 제1차 청지기훈련을 통한 은혜

그리스도의 기도



후나태해질 때마다

“집사님, 권사님 빨리 나오세요! 예배시간 늦었어요!” 청지기훈련이 있기 한 주 전부터 구역 식구들에게 전화하거나 심방하면서 청지기로서의 사명과 훈련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함께 참석하자고 독려했었다.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청지기훈련에 함께 가자고 권면하는 가운데 그렇게 청지기훈련의 날이 다가왔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끄집어 내 놓은 한 나뭇가지와 같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 높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죄악 속에서 멸망받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다가 친히 이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고풍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 주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우주의 만지와 같이 미약한 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만 있다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충성되어 살아야 하는데...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간의 속성이 먼저 나와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때가 얼마나 많았단가!

그렇게 나태해질 때마다 교회에서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을 신앙 안에서 새롭게 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 주어서 얼마나 감사할지 모른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주가 찬미하시고 감하신 나의 예수님이 세상에 인간으로 게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단 말씀을 들으며 뜨거운 회개를 하였다.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통곡하셨다는 말씀에는 한없는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 이렇게 순간순간 감사하다가 인간의 욕심과 나태와 게으름의 속성이 나와서 마음과 입술로 죄를 짓고 주님을 절망하게 하는 우리 인간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독려하시고 훈련을 통하여 깨닫게 됨을 감사드리며 또한 말씀 중간중간에 그도 합당한 찬송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도 청지기로서 사명 다할 훈련을 받으며 감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온 인류에 호명하신 하나님, 우리 약한 인생들의 험타가 되시는 예수님, 병이까지 압박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쉬듯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평안함을 얻기를 소망해 본다.

김영희(집사, 23교구)

후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위에 아프신 분이 있어서 병원을 갈 때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느낀다.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살아있고, 건강함에 감사할 드리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러한 감사의 마음은 봄기운에 눈 녹듯이 사라진다. 그러기에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질병이 나의 돌아온 마음을 낮추어 주고 주님께 대해 무더더기 영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이러한 시련은 영적으로 잠든 나를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임에 틀림없다. 특히 주일마다 위임목사님을 통해 잠든 나의 영혼을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이번 청지기훈련에서 기억나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나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절대적인 겸손이 있어야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난 20년의 신앙생활을 통해 한 발자국의 걸음도, 한 소절의 찬송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음을 주님은 깨닫게 하셨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람의 음정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 가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참된 기도를 드린 것처럼, 십자가 위의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린 것과 같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나의 속사람을 빚어주시기를 소망한다.

이동준(집사, 17교구)

후이미 내가 겪었노라

미지근한 신앙인으로서 나는 얼마나 주께 의지했었나? 나약한 존재에 더 많은 의지를 하지 않았나? 선교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는 주님께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 했던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선택을 후회하였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지만, 굳게 닫혀 있는 내 마음을 열어주실지 의심하였다. 기도 가운데에도 나의 외침은 너무나 작고 흔들렸다. 간절함이 없었으며 주님께서 듣고 계심에 대한 확신조차 없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이런 나를 이미 지켜보셨고 때를 예비하셨으며, 그 예비된 곳에 나를 보내어 주님의 일꾼으로 쓰 주셨다. 그곳에 예비된 영혼들을 통해 주의 사람으로 하나 됨을 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해 주셨다. 하지만 선교 마지막 날이 되자 과연 이 박람이 단순한 박람으로 끝날까봐 두려웠다. 8월 9일 동안 느꼈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불붙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내 모습에 대해 의심스러웠으며 그 자신이 없었다.

그때에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으며, 스스로 공허함에 빠져들었다. 이런 내 자신에 대한 분노와 갈등은 선교 마지막 날에 안겨주시 주님께 대한 감사함마저 흔들리게 하였다. 예수님은 이미 팔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셨지만 나는 마음의 눈을 감고 모든 것을 피하고자 하였다. 아무런 피난처 없이 말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의 마음이 흔들리기 이전, 너는. 얼마나 나를 의지했었나?”라고 물어보신다. “여태껏 나를 향한 기도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 하나님께 간절히 외침과 같이 너 또 한 간절했었나?”라고 예수님께서 청지기훈련을 통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 주셨다.

“내가 겪었을 외로움과 공허감은 이미 내가 겪었노라.”라는 외침은 텅텅 비어있던 내 마음에 너무나 놀라운 위로가 되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를 보전하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17:11). 나 또한 그들 안에 속하기를 주께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바랄 뿐이다. 물에 빠진 사람이 부르짖듯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린 겸손한 기도처럼 순수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이처럼 주님은 이전부터 나를 지켜보시며 예비해 주신 선교와 청지기훈련을 통해 내 마음의 문을 서서히 열게 해 주심을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한다. 그리고 청지기훈련을 통한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내 입술과 마음에서 진정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한다. “온전히 위로부터 받은 주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여야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김지혜(성도, 19교구)

후혼자가 아니어서

이토피로 인해 가려워서 잠을 못자고 고통스러워하며 피로워하는 아픈 어린 딸을 바라보면 하루하루가 힘겹고 버겁습니다. 매주 금요일찬양집회에 참석해 큰 은혜를 받기는 하지만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금요일만 되면 망설여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청지기훈련이라 별다른 갈등 없이 주님이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말씀들을 기대하며 주께로 나왔습니다. 나의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에 허락하신 말씀은 십자가 앞에서 십한 통곡과 눈물로 탄식하며 오직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열드려 하염 없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곳이 이미 예수님의 통곡소리가 거저 간 길임을 알게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고통스럽고 외로운 이 길을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 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둠과 슬픔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사랑으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품에 평안과 안식을 찾으며 살아가려 합니다. 피난처이신 주님이 지켜주심을 굳게 믿고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신 남편, 예쁜 딸들과 함께 힘차게 이 역경을 헤쳐 나가며 기도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르려 합니다.

안현정(집사, 8교구)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시편 16:1)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마다 기도를 하며 주님과 교통할 것이다. 기도는 믿는 사람들이 늘 하지만 쉽고도 어렵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안되는 것과 같이 기도를 통하여 영적 호흡을 하며 매일 아침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 건강한 자의 호흡은 자연스럽겠지만 병든 자의 호흡은 힘들고 버겁다. 호흡과 같은 나의 기도는 어떠한지를 청지기훈련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다. 인성과 신성을 겸하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의 이런 갱새마네 동심의 기도가 있었기에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했던 아름다운 삶이 있었다.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시어 마귀를 이기셨고, 변화산에서 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얼굴의 광채가 해같이 빛나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에서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도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시어 기도로 이루셨는데, 티끌과 같은 우리는 기도 없이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기도 없이는 육신과 소육을 이길 수 없고, 죄악과 욕망을 살 것이다. 성경 속에 나타난 기도의 역경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백성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니 모든 것을 채워 주시며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원대로 마음속이 아버지께 의뢰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낙향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절대적인 겸손함과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부스러야 된다. 더 찢어야 하며 더 죽어야 하는 삶 가운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승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오정래(집사, 1교구)

✞불기둥이 되어 주신 주님

말씀의 기근으로 목마른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간절히 부르시건만 막상 청지기훈련 담일이 되니 미리 약속되었던 친구들로부터 이런 저런 이유들과 참석 못하겠다는 연락들이 온다. 복음의 비밀로 풍성하게 차려진 천국찬치로의 초대, 그저 값싼 마음 하나만 지니고 온단만 주님께 속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기적의 기쁨을 깨달아 일게 될 타인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적격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강권하여 권유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탄식하며 회개하였다. 주지하는 한 후배를 강권하여 함께 참여하니 교인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모인 성도들로 가득하고 성령께서 함께 기뻐하심이 마음의 평강으로 느껴진다.

연합성가대(내 주여 뜻대로) 찬양이 하늘로 들려지니 같이 한 초창자는 열적 감동에 마음 문을 열고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믿음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겸손하심으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모범이 되시기 위해 영원한 승리의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의 기도를 담은 주옥같은 성경구절들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 있게 “기도하라.”하신다. “네 내가 알기도 전에 숨결처럼 먼저 곁에 오셔서 불기둥이 되어 주신 주님, 아한 영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소서. 주님으로부터 도망하거나 피하게 하지 마소서.” 아멘.

박난용(집사, 7교구)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확실히 깨닫는 시간이었다. “나를 지켜주소서.”가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말씀에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고통을 참으신 십자가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위임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전하게 감동되어 전혀 전해졌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신비하시고 완전한 피난처 삼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완전한 피난처로 삼고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세상의 것과 나의 욕심,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한 나의 기도가 정말 부끄러운 뿐이기에 이번 청지기훈련은 참 회개의 시간이 되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로보미에 여인처럼, 수가서의 어린처럼,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진정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가자겠다. “주님,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 주옵시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슬픔에 밀려가지 않도록 겸손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나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정희(집사, 4교구)

✞나는 할 수 없으니

평소 금요일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다. 바람은 몹시 불고 날씨는 매섭게 추웠다. 마치 한겨울인 듯했다. 그러나 전에는 캄캄했는데 지금은 환한 빛이 남아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고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일상의 틀 안에서 무언에 쫓겨 허둥대고 있는 듯, 무엇이 나를 누르고 있는 듯한 생각 속에서 무언가의 변화를 바라고 기대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나의 답답함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본당에 도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다. 위임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것이 내가 진정 하나님께 들어야 할 말씀인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간절한 간구 속에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분이 “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셨는데 나는 교만하여 내가 어찌해 보려고 세상 속에서 허둥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 나는 진정 무엇을 믿고 있었는지?

“지금까지 형식적,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았다. 나의 헤아림으로 남을 헤아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었다. “나의 헤아림이 예수님의 헤아림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도와주소서.”

이종성(집사, 6교구)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가족과 집사님 부부, 부지역장 권사님 부부, 심방권사님 이렇게 10명이 함께 교회로 가는 차를 탔다. 권사님의 기도로 출발하여 고속도로 전용차선을 달리면서 문득 하나님 나라 가는 상상을 해 본다.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열려와 근심 등으로 헤매 때,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님에 모든 짐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좁은 길을 갈지라도 영원한 천국 안식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다 보니 교회에 도착하였다. 본당에서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를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자, “대아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리스도의 기도,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 길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주께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하여 모범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의 통곡소리가 저저 간 길임을 말씀해 주셨고, 완전하신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 하물며 죄 많은 우리가 기도하러 않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죄 많은 피조물임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셨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며 믿음은 말씀을 들을에서 믿음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나는 예수님을 만나며 그 은혜로 기뻐 찬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열한(집사, 22교구)

✞십자가를 향한 기도

저의 삶이 영적으로 둔해졌다는 것을 청지기훈련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임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보호하심, 자기심을 받으신 것처럼 간곡히 기도함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지켜 보호하심을 믿게 한 깨달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적으로 해결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를 향하여 간구하신 것처럼 아버지 손에 부탁해야 하는 믿음의 기도가 절실한 때가 바로 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토하듯 기도하셨듯이 배로 빠진 사람이 부르짖는 간절한 음성인 기도가 되어야 함을 알았습니다. 말씀 속에 약속하신 기도를 지금 겸손히 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어찌까지도 고개를 뻗뻗하게 들고 나 자신을 자랑하며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이니 서기관처럼 기도했습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바리새인 십자가를 향한 나의 기도를 기도,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 겸손한 기도, 간곡한 기도, 이 기도야말로 하늘의 분이 열리며 기쁨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김민희(성도, 24교구)

주요1부예배 메시지(2009. 3. 4.)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갈라디아서 5:16~25)

주님을 따라가는 신자들에게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두고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느끼지 못한다면 신앙의 적신이다. '육신의 일은 무엇이었나 성령의 일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롬 8:1).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이라는 단어를 13회, '성령(영)'이라는 단어를 23회(헬라어성경 원문은 28회)나 사용하면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밝혔다. 그 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정리하였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 5:17). 육체의 일은 세상의 것을 사리에 게 만족과 기쁨을 가져다준다. 반면에 성령의 일은 성전반대의 길로 우리에게 고난과 희생을 요구한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육체의 일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가르치고 있다. 속지말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따라 움직여야 한다.

생명의 영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 우리에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생명을 주셨다(롬 8:2; 요 14:6).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이다(롬 8:10). 우리는 몸(육신)은 죽고, 성령이 주신 생명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도주여야 한다. 성령의 영에 따라 사는 참 신자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니 이미 육신은 죽었기에 두려움을 비롯한 육신의 어떤 감정이나 이성적 판단과 의지는 있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갈 2:20). 그리스도께 살아가는 움직이는 삶에 대해, 자존심, 명예가 중심이 될 수 없다.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창 2:7)이 된 것처럼 오직 영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롬 8:9)은 하나님의 성전이다(고전 3:16).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특이하며 은총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성령의 음성을 듣자.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하자.

영에 의해 길든다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과 심판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나아가 달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된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4). 우리는 단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갈 5:16).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에 의해 걷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갈 5:25). 이 말씀이 천국의 계산법이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롬 8:14). 성령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은 고통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저하지 않는다. 성령에 의해 걷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도 성령에 의해 나아가셨다(마 4:1). 나의 뜻과 계획을 모두 내려놓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성령에 의해 걷자.

즐거하게 하신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롬 8:16). 우리의 어떤 고백이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확증하신다(고후 1:22). 구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시다(롬 8:23).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이 하신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엡 5:9).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이 우리의 입을 열어 간증하게 하신다.

악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신다(롬 8:26). 따라서 당장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슬퍼하거나 실망하는 것은 안 된다. 성령은 아사아를 향한 바울의 겸손을 막으셨다(행 16:6). 대신에 마게도나로 그를 보내셨다(행 16:9).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첫 날 그는 죽을 만큼 매를 맞은 뒤 감옥에 갇혔다. 한밤 중에 정신을 차렸을 때 바울은 함께 갇혔던 실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였는데(행 16:25).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곳에서 성령은 역사하셨고 복음의 첫 열매를 맺게 되었다(행 16:31~32).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들을 고쳐서 좀 더 나아지려고 애쓰지 말고, 자신의 전부를 성령에 맡기자. 성령께서 도우신다.

죽을 몸을 살리신다 성령은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에 처한 우리를 살리신다(롬 8:11).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때 우리는 영원한 천사로 들어갈 것이다(살전 4:16~18).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천국인 하늘을 소망하자. 이것이 참 신자 간 나 누어야 할 참 교매에 참 위로이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전 15:53~54). 반드시 성령은 죽은 우리 몸을 살리신다.

우리는 이미 죽은 죄인이다. 자신을 전실로 믿어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을 받자. 자신의 힘으로 나아가려고 고생하지 말고 성령의 영을 따라 걷자. 성령께서 우리의 악함을 도우시며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마지막 때에 죽을 몸을 살려 영원한 천국에 가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4).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자. 아멘.

마른 무화과나무에서 배운다 (11:20~25)

일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예수님의 저주대로 뿌리째 말랐다(마 11:20). 이것을 두고 오늘날 많은 성경 학자들이 논쟁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자체에만 관심을 두어야 한다. 영적으로 볼 때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패역한 이스라엘의 죄와 벌을 기록한 예레미야 8장은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그들을 진멸리니라 포도나무 무로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일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렘 8:13).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철저하게 진멸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도 여전히 로마 치하에서 그들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정치적 메시아만 원할 뿐 십자가의 메시아는 알지 못했다. 이처럼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예수님은 마른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

베드로는 마른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마 11:21). 이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제자들에게 하셨다. "이 말씀을 믿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리 들이라도 바다에 던져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노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마 11:22~24). 예수님은 무화과나무가 마른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고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셨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참된 기도다. 그런데 당시 기도는 온갖 외식과 위선이 가득했다. 심지어 성전의 상황도 매우 심각했다.

래서 예수님은 감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이다(마 11:17).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다(마 1:35). 예수님께 기도는 모든 사역의 시작과 끝이었고 능력의 원천이었다(마 6:46, 9:29).

예수님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다. 따라서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한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마 2:5). "팔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마 5:34).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마 5:36). "믿지 않음을 이삼히 여겨라"(마 6:6). "네 믿음이 나를 구원하였느니라"(마 10:52).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음이 사라진 기도를 한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다(눅 17:6). 이 믿음이 놀라운 공사를 이룬다(사 40:4).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유는 단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은총의 역사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롬 14:23).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계속 고민할 뿐이다. 오직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후 12:8~9). 나의 뜻과 목표가 아닌 오직 주님의 뜻에 완전히 항복하자(마 14:36).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도 속에 용서가 없거나 용서해야 한다(마 11:25; 마 6:14). 사람은 믿음의 기도를 온전하게 만든다(고전 13:2).

예수님의 저주로 뿌리째 말리버린 무화과나무가 심판의 날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외식과 위선의 일사귀만 무성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결국 뿌리째 말라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한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어줄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믿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는 모든 초점을 맞추자.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에 의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매순간 깨어 자기를 부인하자. 마른 무화과나무가 주는 영적 메시지를 제대로 잊지 말자. "예수님을 믿으라!" 아멘.

새가족양육부 2월 수료자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



♥ 이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즐거움을 주시니다.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시고 사랑에 주신다는 마음에 너무나 기쁘고 항상 예수님이 저와 같이 계신다는 것이 행복합니다. (김수영)

♥ 중언교회에 다니 저는 오래되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어 신앙생활이라도 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새가족부에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저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새를 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김규진)

♥ 예수님은 참 온전하신 선생님 같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면 마치 든든한 버팀목 같은 느낌이 듭니다. 중언교회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 줍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주님이 더 바쁘고 또 기쁘시니다. (김중하)

♥ 예수님은 정말 세상을 알게 해 주신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저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일깨워 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중언교회에서 마음을 열고 찬송을 부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일요일이 이제 뜻깊은 주일로 바뀌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장예림)

♥ 거래처에 함께 근무하는 분의 권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예수님은 인자하고 평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교회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경수)

♥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교회생활을 통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항상 예수님에 의해 위로받을 수 있어서 마음이 넉넉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연미)

♥ 우리 구주 예수님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이제 의지할 곳이 생겼습니다. 또한 믿는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기도할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송재원)

♥ 중언교회 집사로 있는 저의 친구가 며칠만 교회 같이 나가자고 권했습니다. 그 며칠만 가고 가지 않으려고 했으나 이번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생자이시며 만민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금분)

♥ 우리 구주 예수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십니다.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직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차츰차츰 복음에 대해 알고 깨달아 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알뜰의 소망함과 추구함이 하나님께로 집중하여 가는 것 같습니다. (김선미)

♥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시므로 나의 죄는 깨끗해졌습니다. 마음속으로 늘 십자가를 간직하기 원합니다. (김규연)

♥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봉사도 하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박정순)

지난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23일(월) ~ 3월 3일(화)	청년1부 1팀	이순기

♡ 새 가족 들 을 환영 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322	류성호	8	장년2부		332	남영우	19	청년1부	전옥순(19)	342	이인선	1	청년1부	
323	이 순	4	청년1부	홍선기(4)	333	김현경	12	중등3부		343	신건우	1	청년1부	신명주(1)
324	김효현	16	중등1부	이수지(16)	334	전혜영	10	청년2부	남현숙(10)	344	알은영	9	청년2부	김예애(5)
325	최상진	11	장년2부		335	이진민	2	장년1부	이순자(24)	345	기남수	14	청년1부	백준권(14)
326	김광순	10	장년2부	박은주(10)	336	유승현	11	대학부	이일영(22)	346	전찬호	14	고등부	홍종진(14)
327	박경준	12	장년1부	서계설(12)	337	임승범	17	청년1부		347	신세별과	25	외선부	김필려나(20)
328	김지현	7	소년부	이화지(7)	338	최서호	24	청년2부	강정희(24)	348	유지현	9	청년1부	고정준(2)
329	김진희	6	초등부	이화지(7)	339	정국자	2	장년3부	김재희(2)	349	박춘매	8	청년1부	황은선(8)
330	김영조	21	장년2부	최난영(13)	340	박규주	7	청년2부	유순원(3)	350	김대호	20	청년1부	김수현(13)
331	방희진	22	대학부	김순희(18)	341	황지현	23	청년1부	원희순(11)	351	황하나	2	청년1부	

* 중언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청지기칼럼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유전자 아이들과 열심히 율동을 하며 신나게 찬양을 불렀던 젊은 시절의 나는, 이 찬양의 깊은 뜻도 모르고 마냥 좋아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조용희 입안에 뱀뜰게 이 찬양을 부르던 나는 "이처럼 사랑하시라 독생자를 주셨으니..."의 부분에서 그만 목이 매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자에게 못 박혀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나는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던 말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영원한 지옥형벌을 받아 마땅한 나에게 나를 향한 신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에서 나는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느낍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엡 2:8).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 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엡 3:18). 지금 천국에 계신 부모님도,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변화된 내 모습에 내심 기뻐하시면서도 열려스러운 얼굴로 "적당히 믿고 미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3대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우리 가정에 부어 주셨습니다(행 16:31). 직분을 받았을 때 두렵고 떨림에 앉아서 나는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새벽마다 "주님, 나는 입이 헛헛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주님, 모세에게는 아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새벽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충현의 강단에서 주님의 메시지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께서 다스림을 알 때 여러분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을 알 때 모든 열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이란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꺾약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열심히 주님만을 믿는데도 생각했는데 나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임장사님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나를 회개하게 인도했고 나의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을 주었습니다(딤후 1:9).

나는 영인 전부터 주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롬 1:7). 이제 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성도로 불리게 된 것에 감사하며 때를 따라 듣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은사와 평강을 나를 인도한 친구의 입술이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김경애
(권사, 권사서기)

